# 마음 찢기의 결과, 삼중충만

## (요엘 2:1~32)

12.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28.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30.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1.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려니와
32.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마음 찢기의 결과, 삼중충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마음 찢기의 결과, 삼중충만'
본문의 말씀은 어찌 보면 좀 과장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혹은 성경에서나 일어날 일이라 여기는 편이 나을 정도로 과분하게 여겨지는 삼중 충만에 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삼중 충만은 간단히 말해 마음은 영원한 기쁨으로 충만하고 삶은 형통으로 충만하고 영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이력서가 있다면 삼중 충만이 기록된 적이 있을까요? 경험해본 적이 없기에 비현실적인 말씀으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만, 요엘 선지자는 마음 찢기를 할 때에 삼중 충만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결연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음 찢기만 하면 그 결과로 기쁨 자체를 추구해본 적이 없음에도 마음은 기쁨으로 채워지고, 세상의 형통을 바란 적이 없음에도 삶은 형통해지며, 성령 충만을 요구해본 적이 없음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개입하셔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방식입니다. 1장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요엘서를 꿰뚫는 주제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세상에 개입

하심으로써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때를 일컫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개입은 '여호와의 날'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행사는 두 가지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나라가 임하시는 방식이 있으며 섭리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 선민의 마음이 엉켜 붙어서 유착된 상태에서의 하나님의 개입은 섭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마음과 세상이 유착되어 있는 상태를 찢어내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민이 사업과 마음이 유착된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사업을 찢어내시기 위해 사업과 관련된 일들을 막으시는 섭리를 행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선민의 마음이 세상과 엉겨 붙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민을 통해 주권과 능력을 발휘하시며 긍정적인 차원에서 원하시고 성취하시고자 계획하셨던 일들을 진행해나가십니다. 배우자의 경우에 대해서도 마음이 엉겨 붙지 않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본래 가지고 계셨던 계획을 진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배우자에게 엉겨 붙어서 기쁨을 추구하는 상태가 유지된다면 하나님의 주권 행사는 배우자로부터 마음을 찢어내기 위한 섭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지선 씨의 "지선아 사랑해"라는 수필에 대해 아실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전신화상을 입고 7개월간의 입원 동안 30번이 넘는 고통스런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으면서도 신앙을 통해 삶을 희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화상의 무서운 점은 피부조직이 엉겨 붙어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지선 씨의 이야기를 보면 얼굴피부가 엉겨 붙어 한동안 눈을 감거나 입을 다물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아름다웠던 외모를 잃어버렸으나 이지선 씨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지선 씨는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사고를 당했다고 하지 않고 사고를 만났다고 했는데 그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현재 세상을 위해 밝고 건강하고 유익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사고를 당하기 전의 모습을 보면 사실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치료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화상의 흔적들이 드러나는 곳마다 고통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도 같은 느낌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화상을 입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뜨거움이 마음에 화상을 일으키고 배우자와 엉겨 붙게 합니다. 부모로써 자녀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화상을 입은 마음은 자녀와 엉겨 붙습니다. 사업가가 사업에 애착을 갖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 뜨거운 애착으로 인해 마음은 화상을

입고 사업과 엉겨 붙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엉겨 붙으면 붙을수록 자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엉겨 붙은 살들을 떼어내시기 위해 섭리의 수술이라는 주권 행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알아차리면 그만큼 고통이 적어집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중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죄악과 거리가 멀다는 일이라면 아마도 목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도 결국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목회에 뜨거운 애착을 가질수록 마음에 엉겨 붙는 살이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목회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목회를 떼어놓으시려고 섭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1장에서 시대적으로 메뚜기 떼의 습격이 네 번이나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선민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해서라도 얻으려고 했던 풍요와 다산에 대한 습격이었습니다. 그 결과 온 산천초목에 푸른 기운이라고는 남지 않게 됩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환경적 재앙을 마음에 적용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마음을 찢을 것을 요청합니다. 메뚜기 떼가 산천초목에 임해서 풍요와 다산의 기반이 되는 모든 곡식과 열매를 없애버린 것처럼, 회개를 통해 마음에 엉겨 붙은 세상을 완전히 찢어내서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13절에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라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심시켜드리면 우리의 삶에는 평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염려를 하시기에 안심시켜 드려야 한다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문제나 건강문제와 같은 것들로 염려하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것을 뜨겁게 사랑하는 동안 화상을 입고 엉겨 붙게 되는 것을 염려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엉겨 붙지만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속에 위와 장과 그 밖의 장기들이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분리되어 있어서 엉겨 붙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 또한 가족 친구 사업 목회 등과 같은 세상일과 관계를 맺지만 엉겨 붙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일은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기에 내게도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자처하셨습니다. 따라서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는 일들이라면 내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염려는 이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으로 그것들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음은 화상을 입고 엉겨 붙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 하나를 잘 피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해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살펴보았던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라는 부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메뚜기 재앙을 당한 선민들은 먹고 살 것이 없었습니다. 곡식과 과일이 없었고 산천초목이 황폐해지니 동물들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재산이라고 할 것들이 깡그리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선민들은 너무나 억울해서 옷을 찢으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풍요와 다산을 뜨겁게 좋아하는 동안 마음이 화상을 입어서 엉겨 붙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내 주머니의 돈이 없어지고 곳간의 곡식이 사라지는 것을 슬퍼하는 것이 옷을 찢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러한 선민들에게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선민들은 이 회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화를 풀어드리기 위해 성수주일하고 봉사 충성하는 것이 회개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화를 푸시고 가져가셨던 풍요와 다산을 다 되돌려주실까요? 마음은 여전히 세상 것을 뜨겁게 좋아해서 화상을 입고 엉겨 붙은 상태인데, 그것을 찢어내고 수술할 생각을 하지 않고 환경적 상황을 바꾸려고 하나님께 비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서 그 원인이 기도 안하고 성수주일 안한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성수주일 하고 봉사충성 함으로써 하나님의 기분을 풀어드림으로 자녀의 문제가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한 것이 하나님의 수술의 시작입니다. 화상을 당해 유착되어 버린 피부를 살려내기 위해서 칼로 베어내는 수술이 이루어져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문제라는 메스를 드시고 마음에서 자녀를 잘라내고자 하심입니다. 문제는 바로 자녀를 뜨겁게 좋아하는 동안 마음이 화상을 입어서 엉겨 붙은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스스로 찢어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메스를 드실 이유도 없습니다.

모든 회개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해서 사업을 잘되게 해보겠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애초에 내가 사업을 뜨겁게 좋아해서 마음에 엉겨 붙은 상태가 죄임을 깨닫고 마음에서 사업을 찢어내야만 합니다. 이 찢어냄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죽은 자의 의식을 회복할 때에만 마음에서 세상은 찢어져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 내 사업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는 곳이지 내가 뜨겁게 좋아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마음을 찢을 때에 앞서 말씀드린 삼중 충만은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충만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세상을 뜨겁게 좋아해서 마음과 엉겨 붙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의 연합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음을 찢음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표현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신명기 10장이나 30장을 보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함께

마음의 할례가 언급됩니다. 마음에서 세상이 엉겨 붙은 상태를 찢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면서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마음을 찢었을 뿐인데 영원 전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 누리시던 기쁨이 내게도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충만은 삶의 형통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메뚜기 떼의 습격은 삶의 모든 가치가 깡그리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신 이유는 선민들의 마음에서 엉겨 붙은 세상을 찢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마음 찢음을 이루어낸다면 삶의 형통 또한 회복됩니다.
18~19절을 보면 “그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또 22절에서도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라고 하였고 24절에서도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마음이 몸을 비롯하여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아서 화상을 입지 않고 엉겨 붙지만 않는다면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원 전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해 누리시던 기쁨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죽은 자의 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사업, 직장, 목회 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마음을 찢어낼 때에 실제로 100%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형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형통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마냥 잘 풀리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눈앞의 이익을 우리에게 허락하려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수 천수를 내다보시며 이끌어 가실 때에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끝까지 세상에 대해 죽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에 마음에서 막힘이 없는 진정한 의미의 형통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망했다 싶은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조차도 욱여쌈을 당하거나 막혔다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주석을 보면 그 후를 예수님의 초림이나 재림이 이루어지는 종말의 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만

이 말씀을 단순히 시기적인 의미에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항상 오늘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이 찢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은 언제라도 임하십니다.

이어지는 28절 하반부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라고 하였습니다. 이 또한 꿈과 비전을 보는 성령의 은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래 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는 것은 이 세상에 관해서 장래 일을 말하고 꿈을 꾸는 것이고 이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TV에서 뉴스를 보면 일어나는 사건들이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요새 일본에서 G20 회담이 끝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판문점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비핵화 문제 등에 대해서 기대를 갖게 합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나라에 행한 일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경제보복을 하겠다고 합니다. 비단 국가 간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모든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받아들이고 판단합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기도 하며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말씀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는 이렇게 육체적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마음이 장님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의식을 갖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판단과 생각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전에 예로 든 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빛을 받아들이는 사진기의 렌즈가 아니라 빛을 발산하기 위한 프로젝터의 렌즈입니다. 자녀가 말썽을 일으킬 때에 그것을 보고 마음에 받아들여서 판단하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마음은 곧 자녀와 분리되고 찢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고 그것을 자녀에게 발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장래 일을 말하고 꿈을 꾸며 이상을 본다는 말씀의 참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되 눈과 귀로 받아들인 정보를 통해 판단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들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삼중 충만의 삶을 살기 위해 가족, 돈, 건강 등을 비롯한 모든 대상들을 마음에서 찢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의식을 갖는 것입니

다. 이 죽은 자의 의식을 유지해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삶과 영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삼중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찢어짐을 유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염려를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순간순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마음이 괴로워질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이 세상의 대상들과 달라붙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주권 행사는 오직 마음에서 세상을 떼기 위한 섭리의 형태로 임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대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의식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마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해 누리시던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이고, 삶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형통하지 않은 일이 없게 될 것이며,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통해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돈 벌기 위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건강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삼중 충만에 대해 알았으니 이 애씀을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의식을 유지시켜가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의식을 유지함으로써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지는 세상의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뜨겁게 사랑함으로 화상을 입어 엉겨 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찢어진 상태를 유지하게 하셔서 삼중 충만이 나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